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방안

2022. 12.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 추진배경	1
II . '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2
III . 세부내용	3
1. 아동 · 청소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3
2. 청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4
3. 중 · 장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5
4. 고령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6
5. 특수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7
6. 금융교육 추진기반 정비	7
IV . 향후 추진계획	9
[참고]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10

I. 추진배경

- 금융역량이란,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금융지식 뿐만 아니라 금융생활에서 필요한 행동*,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

* [금융행동·행위] 소득지출관리, 재무설계, 금융거래 등에서 소비자가 취하는 행동

** [금융태도]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는지,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는지 등 가치관

- '20년 「금융이해력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지식 점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 [금융지식 점수(총합) 추이] '18년 조사 65.7점 → '20년 조사 73.2점 (+7.5점)

- 평상시 재무상황이나 소득·지출을 관리하거나,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행위 등 금융행동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

* 평상시 재무상황 관리(52.4점), 장기 재무목표 설정(43.5점), 소득·지출관리(54.7점)

- 최근 기준금리의 연이은 상승*, 주택가격의 하락세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등 금융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 [기준금리 추이, %] (5.26일) 1.75, (7.13일) 2.25, (8.25일) 2.5, (10.12일) 3.0, (11.24일) 3.25

** [서울APT 前주 대비 변화율, %] (8월 1주) △0.03, (9월 1주) △0.15, (10월 1주) △0.20

*** '22.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23조원, 일평균 거래금액 5.3조원

- 금융과 관련하여 더욱 신중하고 정교한 의사결정(행동·태도)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장·기술에 대한 이해(지식)도 요구되는 상황

- 다만, 소비자가 처한 상황 및 생애주기별 특성 등에 따라 요구되는 금융지식, 태도 및 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어 맞춤형 접근이 필요

-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교육방식 측면에서도 교육 수요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생애 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마련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교육기관 참여 (8.30일, 9.22일, 11.18일)

II. '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추진방향

목표

- ◆ 금융소비자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핵심 금융역량**을 고려하여
 - (1)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 (2)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실시**하여,
- ➔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증진

세부내용

아동·청소년층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투자원리, 불법사금융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모의투자, 대리입금 피해예방 등 ▶ (방식)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수업, 자유학년제, 창의체험활동 등 	청년층 (“간단하고 핵심적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취업, 주거마련, 학자금대출 등 ▶ (방식) 소셜미디어 활용 ‘숏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이내 간결한 내용의 콘텐츠 제작
중·장년층 (“편리하고 쓸쓸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노후 대비, 자녀 금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자산관리, 장기 재무설계 등 ▶ (방식) 시·공간 제약없는 비대면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e-learning”) 과정 확대 	고령층 (“찾아가는 합동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금융피해 예방, 디지털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피싱, 착오송금반환, 상속채무 등 ▶ (방식) 직접 찾아가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사랑방버스, 복지관 등 연계
특수계층 (“기관 연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교구재 제작, 전문강사 양성 ▶ (다문화가정) 외국어교재 제작, 원격교육 ▶ (북이탈주민) 기관·금융상품 연계교육 ▶ (신용유이자) 유관기관 활용 신용교육 	



연구·조사기능 강화

- ▶ 「연구·조사 협의체」 신설
 - * 금융교육 연구동향, 금융교육 실태 조사
- ▶ 금융역량조사 실시



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 ▶ 협의회 구성에 주택금융공사 추가
 - * 중·장년층, 고령층 실무협의체에 참여

III. 세부내용

1 아동·청소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 **[현황]**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22년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대면 금융교육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주식 투자도 증가세**

* ('21년 1~9월) 74,568건 → ('22년 1~9월) 124,695건 (전년 대비 +50,127건)

** [미성년자 주식계좌(보유, 천개)] 887('19) → 1,558('20) → 2,978('21) → 3,258('22.上)

- SNS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소액(10만원 내외)을 단기로 빌려주고 불법 고금리 및 채권추심을 하는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 발생

< 대리입금 피해 사례 >

- ① (불법추심) A양은 아이돌 굿즈 구매를 위해 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에게 8만원을 빌렸으며 수십 통의 추심전화를 통한 협박에 시달리다 이자·연체료 포함 14만원 상환
- ② (개인정보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려 480여명의 청소년에게 5억3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상환이 지연되자 학생증·연락처 등을 게시

- **[추진방향]** 정규 수업 외 교육활동을 통한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추진

- ① **[내용]** 주식 등 금융상품 모의투자를 통한 ⁽¹⁾투자의 기초원리 습득, 대리입금 예방법 및 대처방안* 등 ⁽²⁾불법사금융 예방교육 실시

* (예시)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 신분노출 방지 위해 경찰조사시 인적사항 생략 가능,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

- ② **[방식]** 정규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을 통해 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 창의체험활동, (초등)방과후 수업, (중등)자유학년제, (고등)수능이후 고3수업 등

- 또한, 교사전용플랫폼(에듀넷 티클리어 등)에 금융교육과 관련된 수업·학습자료를 제공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금융교육을 적극 홍보
-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금융회사-학교 결연 프로그램(1사1교), 금융 캠프, 금융체험관·홍보관 초청교육 등 대면(체험)교육도 전면 활성화

2 청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 **[현황]** 청년 금융교육은 대학생, 정책서민 금융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강좌(2~3학점), 정책상품 등과 연계한 교육 중심
 - 사회초년생 등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고, 일반 청년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낮은 상황



- **[추진방향]**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간단하고 핵심적인 교육**” 추진

① **[내용]** 창업·취업, 주거마련, 학자금 등 청년층의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금융 콘텐츠를 금융교육기관 공동으로 제작하고 교육 실시

- 또한, 일반 청년에게 유익한 금융정보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홍보

② **[방식]**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미디어에 금융교육 통합채널을 개설하고, 5분 이내 간결한 내용의 교육콘텐츠를 통합채널에 게시

- 세부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심화된 금융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홈페이지 및 금융교육 학습사이트(e-금융교육센터 등)도 동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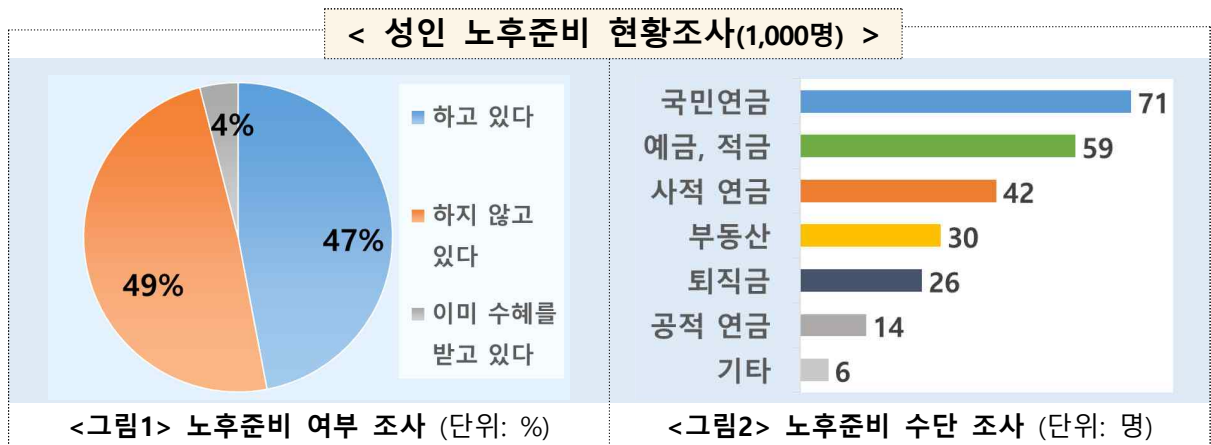
-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현재의 금융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콘텐츠도 추천

* 경품 제공, 금융감독원 등이 운영하는 대학교 봉사단·홍보단 지원시 가점 부여 등

3 중·장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 **[현황]** 육아·직장 등으로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렵고, 다른 계층에 비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콘텐츠도 부족한 상황

- 저출산·고령화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나, '내집 마련'·'자녀 양육비' 등으로 노후준비가 취약



□ **[추진방향]** 생업으로 바쁜 중·장년층을 위한 “**편리하고 쓸쓸한 교육**” 추진

① **[내용]** 노후자산 관리, 장기 재무설계, 금융상품 활용, 가상자산의 이해 등 중·장년층이 관심 많은 주제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

- 자녀에게 금융을 알려주고 같이 체험하는 부모 대상 콘텐츠*도 발굴

* (예시) 금융교육을 위한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관련 활동지 및 교구재 제공

② **[방식]** 시·공간의 제약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과정 확대

- 중·장년층을 위한 “e-러닝” 과정을 정비 또는 신설하고, 중·장년층이 관심 있는 주제별로 콘텐츠를 추천하여 탐색에 드는 비용 절감

- 그간 주춤했던 직장 내 금융교육도 재개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지역협의회*’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내 교육 수요를 취합하고 교육 실시

* '15년부터 전국 11개 금융감독원 지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교육청, 지방대학, 소비자단체, 금융유관기관, 금융사 등과 “금융교육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 중

4 고령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 **[현황]** 은행 점포 폐쇄* 등으로 온라인·비대면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고령층의 경우, 금융접근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 [은행 점포 폐쇄수(건)] 340('17) → 74('18) → 94('19) → 216('20) → 209('21)

-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금융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

* [6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비중] 16.2%('18년, 11,357건) → 21.9%('19년, 15,842건) → 30.0%('20년, 7,746건) → 40.5%('21년 12,107건) → 56.8%('22.上, 8,650건)

<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유형 >

- ▷ (메신저피싱) 문자, 메신저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금전이체 요구
- ▷ (기관사칭) 검·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고 대면으로 만나서 금전을 편취
- ▷ (대출빙자) 저리대출 대환 등으로 자금이체를 유도

- **[추진방향]** 고령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합동 교육**” 추진

- ① **[내용]**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 예방교육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 제도’, ‘상속채무 해결방법’, ‘채무자구제제도’ 등 신용교육도 실시

-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키오스크 이용법, 온라인·모바일 뱅킹 활용법 등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

- ② **[방식]** 금융교육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해 합동 교육을 실시하고, 연극·체험활동을 통해 전달력 제고

-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복지관·노인대학 등과 연계하여 교육수요를 취합하고, 금융교육기관이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
- 도서산간 등 금융소외 지역의 경우 금융사랑방버스*를 활용하거나, 해당 지역 금융사·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교육’ 진행

*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취약계층을 찾아가 민원, 서민금융상품 상담 및 교육 등 원스톱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랑방버스를 운영중

5 특수계층 금융교육 추진방향

- **[현황]** 특수계층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이탈주민, 신용유의자로 구성되며, 각 계층별로 금융 활용정도 및 요구되는 금융역량이 상이
- **[추진방향]** 특수계층의 금융이용 특성을 반영한 “기관 연계 교육” 실시
 - ① **(장애인)** 점자책, 오디오북, 수화·자막이 추가된 동영상 등 맞춤형 교재 및 게임교구의 제작·활용을 확대하고, 전문강사 양성도 추진
 - ② **(다문화가정)** 금융교육 교재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생업 등으로 바쁜 경우에 대비하여 평일 저녁시간 원격 금융교육 실시
 - *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8종의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제공중
 - ③ **(북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협업하거나 북한 이탈주민 대상 자산형성 지원상품*과 연계하여 금융교육 실시
 - * 경제활동 중인 북이탈주민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의 경우 금융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
 - ④ **(신용유의자)** 금융기관·법원* 등과 협업하여 저신용대출 이용자 및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신용관리·금융교육 실시
 - *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15개 법원 중 13개 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시중

6 추진 기반 정비

- ① **[연구 강화]** 금융역량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교육 국·내외 연구동향 및 실태 조사·평가를 위한 ‘연구·조사 협의체’를 새로 구성
 - 핵심 금융역량을 선정하고 역량조사를 통해 현재 수준을 파악
 - ‘연구·조사 협의체’는 ‘금융연구원’, ‘한국금융교육학회’, ‘금융소비자 보호재단’으로 구성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 연구결과 등을 발표

② **〔구성기관 확대〕** 주택연금 이용비중이 큰 중·장년층, 고령층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실무협의체 구성기관으로 추가

*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 및 금융소외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으로 '15년부터 '21년까지 1.5만명 이상이 수강

- 공사의 교육자료·인력·시설 등을 활용하여 은퇴 및 노후를 앞둔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른 교육기관과의 협업도 진행

※ 추진기반 정비 내용(연구·조사 협의체 신설, 주택금융공사 참여)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22.6월 제정)'을 개정 **【참고】**

<표>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WG) 구성

구분		총괄기관	협업기관
아동·청소년 (WG1)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청년기 (WG2)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중·장년기 (WG3)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신협중앙회, 주택금융공사
노년기 (WG4)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신협중앙회, 주택금융공사
특수 계층 (WG5)	장애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다문화가정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북이탈주민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신용유이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연구조사 (WG6)		금융연구원	금융교육학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IV. 향후 추진계획

- 실무협의체별로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행현황을 분기별로 개최되는 '금융교육 실무협의회'에 보고*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실무협의체 소속기관) 세부과제 이행하여 분기별로 총괄기관에 이행현황 보고
(실무협의체 총괄기관) 세부과제 이행현황 점검하고, 금융교육협의회(간사)에 보고

- '23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23.6월 예정)에서 이행현황을 중간점검하고, 최종 추진결과를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23.12월 예정)에 보고

<표>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담당기관	일정
1. 아동·청소년층		
□ 투자의 기초원리, 불법사금융 예방교육 확대	WG1	연중
□ 정규 교과수업 외 교육활동 통한 교육 실시		연중
□ 교사전용플랫폼에 금융교육 자료 제공, 홍보 강화		'23.上
□ 1사1교, 금융캠프, 초청교육 등 대면교육 활성화		연중
2. 청년층		
□ 실용금융 콘텐츠 공동제작, 금융정보 책자 제작	WG2	'23.上
□ 금융교육 SNS 통합채널 개설 및 콘텐츠 게시		'23.下
□ 금융역량 수준진단 및 맞춤형 콘텐츠 추천		연중
3. 중·장년층		
□ 노후자산 관리 등 노후·은퇴 대비 콘텐츠 제작	WG3	'23.上
□ 부모 대상 자녀 금융교육 콘텐츠 발굴		'23.上
□ "e-러닝" 과정 정비 및 직장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연중
□ 직장 내 금융교육 재개		연중
4. 고령층		
□ 보이스피싱, 착오송금반환, 상속채무해결 등 교육 실시	WG4	연중
□ 키오스크, 금융앱 활용법 등 디지털역량 강화교육 실시		연중
□ 금융사랑방버스 운영 및 찾아가는 합동교육 실시		연중
5. 특수계층		
□ (장애인) 맞춤형 교구재 개발, 전문강사 양성	WG5	'23.上
□ (다문화) 외국어 번역 확대, 원격 교육 실시		연중
□ (북이탈) 자산형성 지원상품과 연계 확대, 기관 연계 교육 실시		연중
□ (신용유이자) 금융기관·법원 등과 연계한 교육 확대		연중
6. 추진기반 정비		
□ 금융역량 조사 실시	금감원	~'24.1/4
□ 연구조사 협의체 구성	금융연·금융학회· 금소재단	'22.12월
□ 주택금융공사를 협의회 참여기관으로 추가	금융위·주금공	'22.12월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제정 2022.6.21. / 개정 2022.12.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교육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금융소비자 교육에 관련한 평가, 제도개선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

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산하에 필요한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안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금융교육 관계기관·단체 또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교육관계기관 연석회의를 협의회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의결결과의 보고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개최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하고 각 목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반기 정기회의 : 매년 6월

가. 전년도 금융교육실적 보고 및 금년도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나.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계획 연간실적 보고

다. 기타 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건

2. 하반기 정기회의 : 매년 12월

가. 차년도 금융교육 추진방향 수립

나.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간 위탁업무 수행계획 보고

다. 기타 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건

3. 임시회의 :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금융교육 관련 시급한 정책 결정

나. 기타 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건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대리출석 등) ① 제4조 제3항에 따른 위원이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속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제4조 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분과별로 운영하며, 분과별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 분과 : 아동·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유,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
2. 청년기 분과 : 청년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유,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
3. 중·장년기 분과 :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유,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
4. 노년기 분과 : 노년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유,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
5. 특수계층 분과 : 장애인·다문화가정·북이탈주민·신용유 의자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공유,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등
6. 연구조사 분과 : 국내 및 국외 금융교육 동향 연구, 금융교육 실태 조사 및 평가 등

②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실적을 협의회에 보고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의 구성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연석회의 개최)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연석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단체·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소속 단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1.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2.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한국소비자원, 기독교여자청년회, 한국금융교육학회, 한국금융연구원
3.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투자자교육협의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② 제1항에 따라 연석회의에 참석한 자는 협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의장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관계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연석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연석회의에 참석한 제11조제1항제2호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협의회 및 연석회의 참석자는 협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심의·의결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WG)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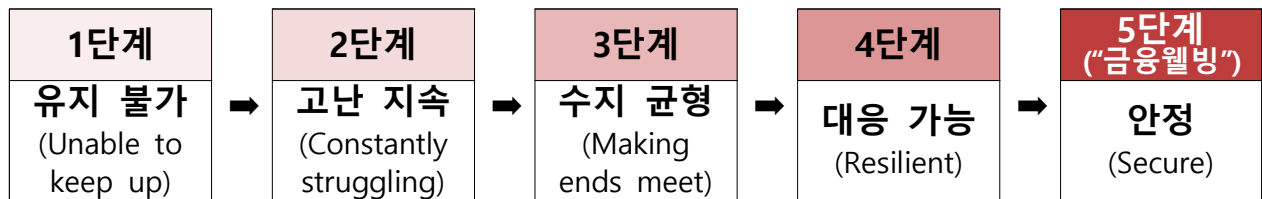
구분		총괄기관	협업기관
아동·청소년 (WG1)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청년기 (WG2)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중·장년기 (WG3)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신협중앙회, <u>주택금융공사</u>
노년기 (WG4)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신협중앙회, <u>주택금융공사</u>
특수 계층 (WG5)	장애인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다문화가정	청소년금융 교육협의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북이탈주민	서민금융 진흥원	금융감독원
	신용유이자	신용회복 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u>연구조사</u> (WG6)		<u>금융연구원</u>	<u>금융교육학회, 금융소비자보호재단</u>

참고

금융웰빙 (Financial Wellbeing) 개념 및 중요성

- **(정의)** “금융웰빙”이란, 금융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금융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고,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의미
 - (美) 금융소비자보호감독기구(CFPB)*는 금융웰빙을 ‘미래의 금융충격으로부터 안전하며 자유로운 금융선택이 가능한 상태’로 정의
 -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
 - (英) 자금연금자문청(MAS)*은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의 강화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5단계 중 최고 수준의 단계’라고 설명
 - * Money Advice Service(MAS)

<그림> 금융역량의 5단계 (英)



- **(해외사례)** 美·英 등 선진국은 ‘금융교육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수립시 “금융웰빙” 달성을 국가전략의 목표로 명시적으로 제시
 - (美) ‘11년 금융교육 국가전략에서 장차 달성해야 할 금융교육의 비전으로 ‘모든 미국인과 가족의 지속적인 금융웰빙*’을 제시
 - * [금융웰빙 4요소] 현재(Present), 미래(Future), 안전성(Security),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
 - (英) 금융교육 국가전략의 명칭을 기존에는 “금융역량 전략”으로 사용(‘15년)했으나, “금융웰빙을 위한 전략”으로 수정(‘20년)
 - **(시사점)** 금융웰빙은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금융웰빙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주도의 금융교육이 필요
 - 금융웰빙을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금융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
 - 다만, 각자 다양한 특성을 지닌 소비자 개개인이 스스로 필요한 금융역량을 학습하여 여러 금융상황에 대응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음
- ⇒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 향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 전략 수립이 중요